불자 세상보기

아이마저 매매하는 부도덕사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영아유기와 신생아 매매가 엄연한 현실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의 부주의와 생명경시 풍조만 탓할 수도 없어 가슴은 더 답답해진다. 그 배경에는 우리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의식부재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간절한 불임부부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10대 미혼(부)모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기꺼이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의의 제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에서 아기를 사고파는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그저 인터넷 상거래상의 물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생명체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불살생계를 수지하고 있는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암울한 사회현상은 인간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체면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정식 혼인관계 이외의 출생은 처음부터 차별과 불행을 타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 유기 혹은 살해,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들은 대부분 임신한 여성들이 혼자 감당해야 할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성윤리의식과 사회적 편견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 일쑤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형편이 못된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몰래 산부인과로 데려가거나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더라도 비밀입양을 권유하게 마련이다.

이 와중에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비혼모(非婚母)의 아이는 당당한 여성권리의 실현으로 치켜세우면서 미혼모(未婚母)의 아이는 애써 외면하는 사회 일각의 이중적 잣대도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상처가 될 듯하다. 혹시라도 미혼모와 그 아이를 어딘가 비뚤어지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내 마음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자문자답을 해본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공업(共業)이 만든 결과이거늘 누가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생 신고제'를 '출생자동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가 출생하고 난 뒤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현행제도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심적 갈등을 겪게 될 미혼모에게 불법입양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입양의 경우 반드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영아의 밀거래와 유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혼부모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성숙된 시민윤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여 년 전 영국에서 잠시 사는 동안 많은 미혼(부)모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나 다른 이웃 사람들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방종하고 철없는 커플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랑하고 어쩌다 아이를 낳게 된 보통 젊은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도 이제 10~20대 청춘의 성(性)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직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서두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비로소 아기를 사고파는 개념 없는 사회라는 자괴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언대

'깨달음 무엇인가' 논쟁

새해 벽두부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현응 스님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된 '깨달음 논쟁'이 불교계를 달구고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불교계 학자들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본지에 기고한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교수의 글과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의 〈미디어붓다〉 기고문 요지를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해하는 깨달음'은 초지성 영역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

간화선을 대표로 하는 선문의 가르침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초(超)지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경우 선문의 초지성주의가 실제 수행 현장에서는 반(反)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오히려 현응 스님의 '지성주의'가 설법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즉 말을 통해) 결국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보게 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게 하는 (즉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초(超)지성주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선문이 이해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부정하기만 한다면 선의 전통이 초지성주의가 아니라 반지성주의라는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선문의 수행자들도 부지런히 지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 높은 지성의 수준에 도달한 것을 증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초지성주의를 논하고 추구해야 함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선문 수행자들의 최상근기를 믿고 선(禪)을 통한 초지성주의와 최상승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응스님의 '이해하는 깨달음'이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올바른 견해라고 결론짓는다. 더 나아가 뭇삶(衆生)의 역사의 현장에서 깨달음을(즉 연기와 공의 관점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 옳음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현응스님의 주장은 나와 같은 재가자에게는 합리적인 수행의 길일 뿐더러 순간순간의 삶이 깨달음의 순간들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기도 하다.

"'무아'라는 흙덩이를 쫓는 행위"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 교수

홍창성 교수는 화두를 넌센스라고 보고 있다. 넌센스를 통해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묻고 싶다.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넌센스를 통해 '깨달으려면'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개그콘서트나 보지, 그 많은 출재가 수행자들은 뭐 하러 안거에 들어가 피눈물 나게 정진하고 있는가? 나아가 넌센스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문제의 해결이 목적인 스님들이 꼭 출가까지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수행자들더러 홍 교수처럼 학자가 되라는 말인가, 그도 아니면 개그맨이 되라는 말인가?

선문에는 "흙덩이를 던지면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는 말이 있다. 홍 교수는 지금 부처님이 던진 '무아'라는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단멸무아'로 착각하고, 그 '허무의 논리'로 멀쩡한 선문을 걱정해 주고 있다.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무는 사자라면, '흙덩이'는 바로 온갖 언어로 시설된 방편개념들이고, '사람'이란 바로 '연기중도의 불이법'인 것을 안다. 무명칠통을 부수고 전도몽상에서 깨어난 선사들은 '불이법'을 곧 '마음'이라고 불렀다.

불조께서 연기중도의 불이법을 깨달으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불이법의 다양한 방편이름들' 중의 하나가 곧 '무아'요, '마음'이요, '공'이요, '진여'이다. 그 수는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이다.

불이법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법계실상이며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반야지혜이다. '공'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공'에 있고, '무아'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무아'에 있으며, '마음'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마음'에 있다.

社說

불교계 호스피스 사업 준비하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는 조건적으로 심폐소생술 · 항암제 투여 · 혈액투석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존엄사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다. 실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들이 재판을 청구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존엄사가 인정된 사회의 변화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웰다잉'이 구현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제도가 호스피스와 완화치료다. 현재 불교계도 뜻있는 스님들이 중심으로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018년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호스피스 시설 확충 △독자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 확보 등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영적 돌봄을 원하는 환자가 많아 적지 않은 병원에서 스님들을 요청하지만 현재로서는 활동할 수 있는 스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몇몇 병원에 호스피스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종단은 종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스님들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립 의료원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은퇴 출가자' 출가 절벽 해법되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종무기조와 세부 계획들을 발표했다. 제34대 핵심과제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와 중앙 및 교구 균형발전, 승려복지제도 현실화와 함께 저출산 및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극복 방안이 대거 담겼다.

이들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전문직 은퇴자들의 특수 출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은퇴 후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정 자격과 전형을 통해 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점차 줄어드는 출가자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그간 조계종은 사회 고령화로 노령 출가가 대폭 증가하자 출가 연령을 하향 조정해왔다. 1996년 출가 상한연령을 50세로 낮췄고, 2002년에는 40세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출가자 급감하자 2006년 상한 연령을 50세로 환원한 바 있다. 은퇴 출가가 허용되면 사실상 출가 연령이 폐지되는 것이다.

조계종 출가 담당 부서인 교육원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출가 진흥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직 은퇴자와 미래세대의 출가를 동시에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출가와 출가 홍보는 단기적인 방편이다. 어디까지 미래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계층 포교가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불교와 스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전무한 출가 전담 부서 역시 개설돼야 한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그만큼 투자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투자가 없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올해 조계종의 출가 예산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